



KIA타이거즈 선수들이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 김세현·윤석민 조기 귀국... 마무리 '묘책' 주목

**여기는 오키나와**  
한경국 기자, 스프링캠프 현장을 가다

KIA 베테랑들 나란히 이탈... 변수 대비에 골머리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서 불펜 운영 해결 '빨간불'

“아쉽지만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했습니다.”  
마무리 투수의 확보가 절실해졌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들이 연달아 이탈하고 있어서다.  
부활에 기대를 걸었던 김세현(32)과 윤석민(33)이 올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스프링캠프를 2주일 채 넘기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가장 먼저 이탈하게 된 선수는 김세현이다. 김세현은 오키나와 캠프에 도착한지 사흘 만에 짐을 쌌다.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낀 김세현은 피칭 등으로 몸을 풀어봤지만 제대로 훈련을 소화

하지 못했다.  
김세현에 이어 두 번째로 스프링캠프에서 하차하게 된 선수는 윤석민이다.  
윤석민은 예전부터 발목을 잡았던 어깨와 오른다리 내전근(허벅지 안쪽) 통증으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고 판단, 11일 귀국이 결정됐다. 이로써 KIA는 '마무리 투수진 구성'이라는 숙제가 추가 됐다.  
김세현은 2017시즌 KIA로 이적해 전년도 구원왕답게 호투를 펼치며 팀의 우승에 공헌한 선수다.  
위기 때 마다 마운드에 올라가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방어에 성공했다. 특히 한국시리즈에서는 4경기 동안 4.1이닝 무실점을

기록, 2세이브 1홀드를 올렸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부진의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모두 40경기에 출전한 그는 1승 6패 4세이브 평균자책점 6.75를 기록했다.  
윤석민도 비슷하다.  
윤석민은 2016년 오른쪽 어깨 아웃리퍼 제거 수술 이후 통증이 발생했던 뒤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평균자책점이 2015년 2.96, 2016년 3.19로 호투를 이어가다 2018년에는 6.75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윤석민의 경우 아쉬움이 크다.  
스프링캠프 시작 때부터 통증이 있어 워밍업과 캐치볼 위주로 훈련한 그는 최근 들어



윤석민

불펜피칭을 하겠다며 자발적으로 나설 정도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통증 탓에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고 KIA코치진은 스프링캠프에서 훈련하



김세현

는 것보다 돌아가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귀국을 결정했다.  
그가 부진을 씻어보고자 하는 의지는 지난 연말 연봉 계약을 앞두고 구단에 백지위임을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연봉 12억5천만원에 달하던 윤석민은 올해 초 2억으로 연봉을 조정, 역대 최고 삭감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잘해보고자 다짐했다.  
하지만 컨디션 회복이 생각처럼 쉽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첫 단추부터 어긋나 버렸다.  
마운드에 머무름이 차오르고 있는 KIA가 스프링캠프 때 마무리 구성을 완료하고 시즌에 돌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KIA는 지난 1월 31일부터 일본 오키나와(긴구장) 일대에서 스프링캠프를 열었다.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4명, 선수 40명 등 54명이 캠프 명단에 포함됐다. 투수 조는 윤석민, 김세현, 양현중, 터너, 윌랜드, 김운동, 임기영, 한승혁, 이민우, 황인준, 문경찬, 고영창, 박지훈, 홍건희, 이준영, 유승철, 하준영 등 20명이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 광주FC, 우즈벡 국대 수비수 아술마토프 영입

위치선정·빌드업 등 강점...4년간 91경기 소화  
2018 AFC U-23 챔피언십 등 국가대표로 활약

프로축구 광주FC가 창단 처음으로 외국인 수비수를 영입하며 승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광주는 7일 현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수비수 아술마토프(22·Rustam ASHURMATOV)를 영입하며 수비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185cm·74kg의 체격을 지닌 아술마토프는 수비 시 위치 선정과 안정적인 볼 처리, 정확한 톱패스 등이 강점이며, 스피드가 좋아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속팀인 분요드코르에서 4시즌

(2015-2018) 동안 91경기 5골을 기록했다.  
2013 FIFA U-17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4 AFC U-19 챔피언십, 2015 FIFA U-20 월드컵 등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아술마토프는 2017년 A매치 데뷔전(vs.그루지아)에 성공했다.  
이후 2018 아시안게임 8강 견인과 함께 AFC U-23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선제골을 기록,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아술마토프는 “나에게 광주는 첫 해외 진출 팀이자 새로운 도전의 무대”이라며 “광주의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팀에 잘 적응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광주 관계자는 “창단 처음으로 외국인 수비수를 영입했다. 지난 시즌 아쉬움을 보완하고 반드시 승격하겠다는 의지”라며 “아술마토프는 풍부한 경험 있고, 팀 스타일과도 일치한다. 올 시즌 광주의 수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 현지에서 매디컬테스트를 마친 아술마토프는 곧바로 팀에 합류해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 TIGERS KIA 스프링캠프 아무저무

#### 올해도 셋별조·스타조로 나눠 구슬땀

올해 KIA 스프링캠프는 셋별조와 스타조로 나뉘어 훈련이 진행된다. 셋별조와 스타조는 지난해부터 만들어져 운영돼 왔다.  
셋별조는 아직 '스타'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지만 장래가 촉망한 선수들을 선별해 모인 그룹이다.  
유승철, 하준영, 김기훈, 홍원빈, 장지수, 신범수, 한준수, 류승현, 최원준 등이다.  
반면 스타조는 이름 그대로 '스타'급 선수들이다. 김주찬, 안치홍, 김선빈, 최형우, 양현중 등 베테랑들로 구성됐다.

이 스타조의 이름에는 탄생 비화가 있다. 사실 스타조의 이름은 고참조였던 것이다. 지난해 김민호 총괄코치가 기대주를 육성하기 위해 셋별조를 구성해 따로 지도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고참들이 모인 그룹은 고참조로 불리며 훈련하게 됐다.  
이때 김기태 감독이 “셋별조, 고참조는 모양새가 맞지 않아 보인다. 셋별조가 있으니 기왕이면 같은 별을 뜻하는 스타조로 부르자”고 설득해 고참조가 스타조로 불리게 됐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 광주시검도회, 호주검도협회 친선 교류 참가

7~17일까지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서 검도 친선교류 개최  
양도시 간 오가며 친선 검도 기술 공유 등 검도 세계화 도모

광주시검도회가 활발한 국제 검도 교류를 위해 해외 자매결연 도시인 호주 멜버른을 방문했다.  
광주시검도회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 등지에서 열리는 '2019 광주시검도회-호주검도협회 간 검도 친선교류'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친선교류에는 광주시검도회 임원을 비롯해 서석고와 조선대 선수단 등 총 19명의 파견단이 참가해 멜버른대학 검도 클럽

등 호주검도협회에 한국의 선진 검도 기술을 전하고 우호를 다질 계획이다.  
호주와의 검도 교류는 지난 2017년 2월 호주 빅토리아주 검도협회에서 주관해 멜버른에 파견했던 것을 시작으로 1년에 두 차례씩 2년 간 양 도시를 오가며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검도 기술은 물론 트레이닝 방법, 문화, 학술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하며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광주시검도회는 국제 친선교류를 비롯해



지난해 검도 친선교류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호주 멜버른 검도 클럽과 광주시검도회 관계자들이 수련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당기 전국 생활체육 검도대회, 시장기·회장기 검도대회 등 각종 대회와 행사를 주최하며 검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친선교류에 참가한 정동진 사범(8단, 서석고 교사)은 “양 단체의 지속적인

교류로 화합뿐만 체계적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검도회가 종목단체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양기영기자 ginaullove@srb.co.kr

구분	명단	날짜	상대팀	장소
코칭스태프	박홍식 감독 류택현 광정철 김선진 정성훈 김창희 박기남 김지훈 장대수 방석호	2월20일	라이고 몽키스	도류구장
		2월22일	kt위즈	도류구장
		2월23일	라이고 몽키스	도류구장
투수	강이준 김승범 박경태 박정수 백미카엘 서덕원 유근상 이원빈 진상현 차명진 양승철(신인) 이호현(신인) 나용기(신인)	2월26일	푸방 가디언스	도류구장
		2월27일	kt 위즈	난화대학 야구장
포수	박정우 한승택	2월28일	푸방 가디언스	도류구장
내야수	김석환 김주현 문장은 박찬호 서동욱 윤해진 황윤호 오선우(신인) 김창용(신인)	3월1일	NC 다이노스	도류구장
		3월3일	NC 다이노스	도류구장
외야수	이명기 유재선 이인형 전은석 김민수(신인)	3월5일	통이 라이온스	도류구장
		3월6일	중신 브러더스	도류구장

## KIA 퓨처스 선수단 대만 스프링캠프 돌입

KIA타이거즈 퓨처스 선수단이 타이완에서 스프링캠프에 돌입한다.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오전 9시45분 아시아나(편명 OZ711)를 이용, 타이완으로 출국한 KIA 퓨처스 선수단은 오는 3월 8일까지 도류

시 도류구장에서 스프링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스프링캠프에는 박홍식 퓨처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0명, 선수 29명 등 총 39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